

# 현재의 외고 · 국제고 · 자사고, 원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 옛날의 경기고, 서울고와 같이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질

자사고가 설립한 취지와 다르게 대입에서 고등학교 유형간 서열화와 교육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다. 교육 당국에서는 2025년에 외고 · 자사고 ·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도입을 위한 결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 ◆외고·자사고·국제고

외고(외국어 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 가운데에서도 외국어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교이다. 당시에 취약했던, 외국어 인재를 키워내자는 목적이었다. 2014년 기준 전국 31개교가 있으며 전국에서 매년 약 7,900명을 선발한다.

자사고(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말한다. 고등학교 평준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2년에 도입되어 시범 운영 됐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았고 자체 심사를 거쳐 교육부에 추천을 했다. 교육부는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고 시범 운영 대상학교는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결합 보조를

받지 않으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우선대상이다.

국제고(국제 고등학교)는 초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90조에 따라서 설립된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이다.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일종으로 1998년에 국제 중학교와 같이 등장했다. 몇몇 특성화 고등학교 중 교명에 ‘국제’가 들어간 학교들이 있지만, 국제 고등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학교들이다. 2018년부터 과학고,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 외국어고, 일반고에 이중 지원 및 동시 선발이 가능해졌다.

###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총 10개의 자사고가 기준 미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 및 일반고의 전환이 결정되었다. 해당된 자사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교육청을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2월부터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며 교육청은 이에 항소한 상태이다. 법원 판결이 2025년에 예정되어 있는 외고 · 자사고 ·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에 제기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헌법소환도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서울 동성고나 서울 한가람고 등은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포기하고 2020년부터 일반고로의 전환을 발표하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다. 학령인구의 급감과 지속적인 자사고 폐지 정책 등으로 자사고가 학생 충원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큰 이유로 작용했다.

### ◆자사고 폐지 찬성 측 의견

기본적으로 현재의 외고·국제고·자사고가 원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옛날의 경기고, 서울고와 같이 입시 전문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원래 목적인 외국어 교육과 자율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강화시키는 입시를 위한 기관이 되었다.

다른 비판은 비싼 학비로 인해서 귀족 학교 등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2018년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평균 학비는 연간 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전국단위 자사고의 연간 학비는 평균 1133만원에 달하며, 가장 비싼 민족사관고등학교의 경우는 1년에 2800만원 수준이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회의 평등인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은 자사고에 입학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게 됐다. 자사고와 외

고에서 사회 배려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기에 충분히 저소득층 가정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사고의 사회 배려자 전형은 매년 미달인 상황이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중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보다는 외고, 국제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31.3%의 학생들만이 어문계열에 진학하는 외국어 고등학교와 달리 과고, 영재고에서는 94.4% 학생들이 이공계로 진학하고 있어서 과고가 외대 입시기관으로 변질되었다는 주장이 힘을 잃었다.

이학은 모든 학문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동일계 진학 비율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은 일반고와 자사고만으로도 반박이 가능하다. 동일계 진학을 따질 거면 왜 일반고와 자사고가 있는가, 애초에 다양한 학과에 지원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외고를 선택하는 것은 학생 본인이다. 그런 논리라면 보편적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맞으며 무엇보다도 외고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다.

글로벌 시대에는 외국어 인재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있으나 글로벌 시대라는 것은 특수한 외국어 인재의 필요성보다는 다른 분야의 인재들이 외국어도 잘한 필요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이럴 경우에는 보편 외국어 교육 혹은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외국어 교육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외국어 고등학교는 이 중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인재 양성에 맞춰서 어학, 어문 계열로 입시를 짤 것인지 아니면 보편 외국어 교육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과 목표 자체가 없다.

김다혜 (마령고 2)

## 진안 청소년들의 문화권 침해

### 오락시설의 독점화

#### 왜 청소년들은 진안을 떠나려고 할까?

진안.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물 좋은(?) 진안이지만 청소년들은 왜 진안에 있는 것을 싫어할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필시 오락시설의 열악한 환경일 것이다. 막상 진안에 있어봤자 재밌게 놀 수 있는 공간은 적고, 불편하며 심지어 비싸기까지하다. 놀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독과점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어른들은 잘 알지 모르는 듯 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자 이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다.

#### 진안 오락시설의 독점 문제는 얼마나 심각할까?

먼저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진안 중고생 102명한테 설문조사를 받았는데 진안군 오락시설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라는 질문에 71.6%가 아니오라는 대답을 28.4%가 네라는 대답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청소년들은 높은 가격 (58.4%)으로 제일 불만이었고, 환경의 열악함(24.7%)로 뒤를 이었다. 먼저 pc방을 보자면 pc방의 문제점으로 너무 높은 가격 (45.3%)으로 역시 제일 높았고, 자리 부족 (21.1%)이 두 번째로 많았다. 컴퓨터의 성능, 즐길 게임부족도 (8.4%) 적지 않은 불만이 나왔다. 이는 청소년이 갈 수 있는 pc방이 하나밖에 없어 독점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재 진안 pc방 가격은 비회원 기준 40분에 1000원인데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1500원이 된다. pc방을 잘 안간다면 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잘 체감이 안될 수도 있는데, 옆 전주는 1시간에 1000원으로 진안이 전주보다 1.5배 비싼 것을 알 수 있다. 진안이 너무 시골이어서 그런다 할 수도 있지만, 완주군의 경우 저렴한 pc방은 1시간에 500원, 평범한 pc방은 1시간에 1000원으로 역시나 큰 차이를 보였다. 그렇다고 진안 pc방의 환경이나 컴퓨터의 성능이 좋지도 않아 진안에 사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비판을 자아내고 있다.

다음으로 노래방을 보면 청소년들이 가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 독점 문제가 심각하다. 제일 큰 불만으로는 너무 좁은 공간이 제일 높았으며 (34%), 지나치게 비싼 가격 (33%), 방음이 되지 않는다. (20.2%)으로 공통적인 반응으로는 좁고, 비싸고, 방음이 되지 않는 노래방을 안가고 싶지만 이 역시도 하나 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간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비싸게 받고 싶어 하겠지만 청소년의 일부는 이런 지나치게 비싼 가격, 환경의 열악함이 진안군 청소년의 문화권을 해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독점문제가 심해질수록 청소년들은 문화권을 침해받을 것이며, 오락시설의 부족한 환경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활동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어떻게 하면 진안 청소년들을 문화권을 보장할 수 있을까?

진안군 청소년에대한 지원은 타 지역과 비교해보면 결코 적은편은 아니다. 이번연도에 진행된 청소년과 군수와의 만남 자리에서 문화권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건의하여, “청소년 드림카드” 조례를 만들어, 내년 부터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원래는 고등학교생만 대상이었지만, 진안군의회에서 중학생

들까지 지원해주려고 추진중이고, 고등학교생 5만원, 중학생 3만원 상당의 금액(예상)을 매달 받는 기회도 생겼다.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카드를 쓸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

진안군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부족한 진안군 오락시설에 추가로 무엇이 생기면 좋겠냐는 질문에 만화카페 (35.3%)가 제일 높았으며, 볼링장 (29.4%), 다른 코인노래방 (11.8%), 다른 pc방이 (10.8%)로 만약 이러한 시설이 추가로 생긴다면 전보다 훨씬 진안 청소년들의 문화권을 더 보장 받을 수 있을거라 전망된다. 의원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어른들도 청소년을 위해 노력해주고 있는 만큼 ‘진안 어차피 놀 것도 없는데 전주나 가자’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기사를 쓰는동안 청소년들과 이야기하고, 설문조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는 진안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 할 것이 없는 진안을 싫어하는 것이다. pc방이나 코인노래방을 싫어하는 것이 아닌, 비싸고 열악한 환경의 pc방과 코인 노래방을 싫어하는 것이다. 더 살기 좋은 진안을 위해서, 문화권을 보장받고, 언젠가는 진안의 오락시설에 대해 욕이 아닌 칭찬이 많이 들리는 날을 기원한다.

빈현옥 (진안제일고 1)